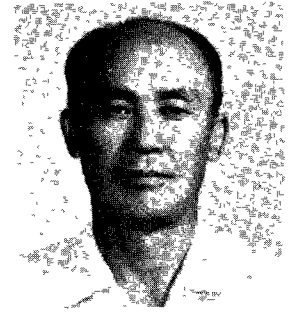


漢藥材 応用에 對한 臨床手記 (2)



韓 璣 植

(한일가축병원)

〈본회지 1981년 11월호 77P에
이어서〉

1. 젖소 유방염 치료에 대한 한약재 응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낙농업이 점차 발전해가고있는 반면에 젖소의 유방염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있는 실정이다. 이 만연된 젖소의 유방염을 치료하는데는 필자가 경험한바로는 洋漢方의 併用이 치료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는것은첫째 한약의 연속작용으로 약물중독이 잘 해소되어 洋藥品의 증량이 필요하지않고 설파제의 효과가 현저하다. 둘째 한약재의 조제(粗製) 비타민의 성분이 젖소의 체내에 흡수되어 체력이 증진될것으로 생각된다.

유방염에 적용되는 한약재를 본초강목(本草綱目)과 성분및 약효 용량을 기술하고 기본되는 처방을 열거한다. 또 본면 기술상에 미흡(未治)한 점이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랄뿐이

다. (注 本草綱目이라함은 39권의 서적인데 명나라 李時珍이 지음. 1892종의 동물 식물 광물로 분류하여 지은책)

2. 유방염에 쓰이는 한약재들



黃栢 속명은 황백나무 (학명은 *Phellodendron amurense*) 황열이라고도 한다. 운향과에 딸린식물로서 낙엽및 활엽 교목으로 잎은 우상부엽이 되어

있고, 작은잎은 난상 피침형이며 밑은 둥글고 뭉툭한 톱니가 있다. 꽃은 나무끝에 피어 단원추의 꽃으로서 5~6월경에 황백색의 꽃이 핀다. 과실은 콩알크기만한 핵과로서 구형이며 9~10월에 까맣게 익는다. 깊은산의 비옥한 땅에 자란다. 수피는 灰白黃色을 띠고 수피와 과실을 약용에 쓴다. 또 세균에 대한 살균력이 강하다고한다. (일본경도대 증명) 수피는 코르코용 및 황색염료에도 쓰인다. 성분은 알카로이드인 Berberin 및 Palmatin으로 주성분을 이룩하고있다. 용량은 큰소를 표준하여(이하 동일함) 20g 까지 쓸수 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황백나무로서는 넓은 황백나무 섬황백나무(서남해 열도에 자란다고 한다) 털황백나무 라태 황백나무 등이 자라고있다. 이 한약재는 가축약으로 권장할만한 약재이다. 왜냐하면 경운기가 발명되기전에 소를 가지고 농경에만 전용할때에 안상

(鞍傷)이 많이 발병한것은 사실이다. 이 안상에 황백나무 껍질을 벗겨 말려서 가루를 내어 심을 만들어 안상의 瘡口에 주입하고 단뿔하게되면 고름이 빨리 거두어지고 去旧生新이 빨라 창상의 치유가 잘되는 것을 보았다.



황기

黄段 황기 (학명은 *Astragalus reflexistipuls*) 속명에는 단녀삼뿌리라고도 한다. 이 황기는 콩과에 딸린 식물로서 강원도 영월산이 가장 좋으며 기타산지에 자생하는 다년생 草本으로 뿌리가 살이 찌서 굵고 비육하며 줄기는 땅에 누워서 덩쿨을 이룩하고 잎은 기수우상 복엽으로 마주난다. 잎자루가 없고 작은 타원형 및 계란형으로 되어있고 늦은 여름에 잎겨드랑에서 꽃대가 생겨나와 담황녹색의 나비모양의 꽃이 피고 열매는 협과로서 8월경에 익는다. 늦은가을 초봄에 뿌리를 채취하여 약에 쓰는데 이 약재는 경구로 투여해도 염창에 배농이 잘되어서 생약이라고한다. 또 가축약에는 실질장기의 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완화 강장및 저창에 해독작용을 잘하게 된다. 용량은 16g 까지

쓸 수 있다.

防風 속명은 방풍나무뿌리 (학명은 *Siler-davaticatnm*) 미나리과에 딸린식물로서 중국이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 재배종이있고 또 강원도 산야에 자생하고 있다. 3년생으로 전체에 털이있고 줄기는 곧게 섰으며 가지가 많이 갈라졌고 다소 단단하며 높이 1m내외로키가크고 잎은 3회우상으로 분열하였으며 열편이 피침상의 새끼모양으로 끝이 날카로우며 꽃은 여름 및 가을에 작은 꽃이핀다. 약효는 해열 및 진통약에 쓰이고 용량은 20g 썩 사용한다. 성분은 불명이나 위의 황기를 도우기 위하여 방풍은 使臣의 역할을 한다(注=한약재는 君使제가 있다)



천태어아

天台烏藥 (학명은 *Lindera-strychnafolia*) 원래 중국이 원산지이나 약용식물로서 우리나라 일부지역에 이식재배하고있다. 본 식물은 녹나무과에 딸린 식물로서 상록수이다. 줄기가 7~8m 정도로 키가크고, 잎은 타원형으로 잎끝이 뾰족하고, 두터우며 광택이 난다. 이 잎은 아래로 수그리고 있는 것이 특성이다. 3~4월 경에

끝가지위에 잎의 겨드랑에서 비늘모양의 껍질이 형성되어 그안에서 담황록색의 작은 꽃이 피어나온다. 뿌리를 채취하여 약에 쓴다. 성분은 ①linderan ②linderen ③ rinderol ④lindersaure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효는 방향성 진위제로서 여러 실질장기에 스며드는 성질을 지니고있고 비유 역할을 잘하게되니 젖소에 적합한 한약재이고 임질 산통 등에 효과가 있으니 가축약으로 쓸만한 약재이다. 용량은 4g씩 사용한다. 천태오약외에 防己科에 딸린 행주오약이 있는데 대만이 주산지다. 약효는 천태오약과 동일하다.



목향

木香 (학명은 *Linaloa-jaonica*) 본식물은 영거시과(菊科)에 딸린 식물로서 유럽이 원산지이나 각지에 약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다년초로서 전체에 짧은털이 밀포했고 줄기는 곧게 섰으며 비대하고 높이 약0.8~2m정도로 키가 크고, 잎은 넓은 타원형 및 장타원형을 이루고있다. 잎끝이 날카롭고 고르지 않은 치아 모양의 톱니가 있다. 꽃은 여름철에 머리꽃이 반동근형으로 황색을 띤 꽃이

피고 가을에 여인과실이 맺는다. 늦은 가을에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쓴다. 성분은 아란도라구동 및 아란돌산 고미질을 함유하고 있다. 약효는 이노 및 살균 작용을 한다. 소의 유방이 달려있는 삼초부분에 모든 약을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니 유방염에 사용할만한 약재이다. 용량은 12g씩 사용한다.

桔梗 속명에는 도라지(학명은 *Platycodon-grandiflorum*) 본초는 길경과에 딸린 식물로서 목초성상은 생략하고, 성분은 Saponine을 함유하고 있다. 약효는 인후두 질병에 잘 쓰이는 한약재인데 모든 성분 환부로 이끄는 성질을 지니면서(산도라지에 한한다) 병변부위에 上下승의 작용을 잘하고 수렴 및 진통제로서 유방염에 권장할만한 한약재이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蘇葉(소엽) 속명에는 차조기(학명은 *Vaccrispa*) 꿀풀과(脣形科)에 딸린 식물로서 9월에 잎을 채취하여 약용에 쓰고 약효는 소염제인데 경화된 환부를 잘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용량은 25g씩 사용한다.



육계

肉桂(육계) 官桂라고도함. (학명은 *Cinnamomum-Loureirii*) 본식물은 녹나무과(樟科)에 딸린 상록교목으로 중국 완지에 자생한다. 줄기는 3~5m정도, 키가크고 잎은 혁질이 고 모양은 장타원형으로 3대맥이 현저하게 있다. 여름철에 잎의 겨드랑에서 꽃대가 생겨나와 담황색의 작은 꽃이 취산화서로 피게된다. 꽃이지면 흑색의 열매가 연다. 뿌리는 맵고 달콤한 맛과 향기를 품는 것이 특징이다. 성분은 휘발유수지 단영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약효는 건위강장 및 교취약이고 동물의 배부분에 혈맥을 잘통하여 유방부위인 하초에 잘 작용하게 되니 유방염에 권장할만한 한약재이다. 일본에서는 방향정 방향아편주 계피유 계피사리별 계피정기 산성방향정기 북방라헨델정기 등등이 제약되어 있는데 임상수의 사들이 즐겨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약품들이 아쉽다. 용량은 4g씩 사용한다.



패모

具母(학명은 *Fritillaria-verticillata*) 이 식물은 백합

과에 딸린 식물로서 산에 자생하고, 관상용 및 약용의 목적으로 전원에 많이 재배하고 있다. 다년생의 초본(草本)으로 줄기가 1~2m정도 키가크고, 잎은 좁고 길게 뻗어나서 3엽으로 마주난다. 3~4월경에 목초, 끝가지위의 겨드랑에서 꽃대가 생겨나와 6편의 종(鍾) 모양으로 꽃이 피어 담황녹색을 띤다. 제비알모양의 크기에 고기비늘과 같은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쓴다. 성분은 알카로이드인 *Fritillarin*이 함유되어 있고 약효는 진경 진해, 거담약이다. 성분인 후리지라린은 八木精一(일본 경도대교수) 씨가 패모에서 분리하여 후리지라린이 중추신경계를 마비하고, 호흡 및 자가운동의 기능을 장애하여 심장을 침범해서 심장박동수를 줄이게되고 수축을 불완전하게하여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일본 경도대학 의학잡지 제10권 제2호 게재) 가축약에 사용할 때는 병변부위가 육종이 되어 경련 및 동통에 이르거나 고통이 심해져서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곤란할때 사용한다. 용량은 12~16g씩 사용한다.



치자

梔子 치자나무 (학명은

Gaflenla-ilorkla) 이 식물은 꼭두서니과에 딸린 목초로서 상록활엽의 관목으로 잎은 마주나서 장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밑잎이 좁고 광택이 난다. 꽃은 나무가지 맨위에 1개가 여름철에 백색으로 대형의 꽃이 피고 꽃자루가 없으며 꽃판은 항아리 모양이고 꽃이 진후에 6~7모가 난 장타원모양의 과실이 맺어서 가을에 황록색으로 익는다. 이 과실을 식용 및 약용에 쓴다. 경기도 이남에 야생한다. 성분은 색소배당체 및 구로징과 싸후랑이 함유되어 있다. 약효는 해열 및 진통약이고 비유를 촉진시킨다. 젖소 유방염에 권장할만한 한약재다. 용량은 12g씩 사용한다.



남시호

南柴胡 속명에는 뫼미 나리 (학명은 *Buplelurum-Sachalinense*) **北柴胡** (학명은 *Bupleurum falcatum*) 이 식물은 미나리과에 딸린 산야에 자생하는 다년초이다. 식물모양은 도본으로 표시하고 남시호 북시호는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의 시호가 모양이 달라서 구별한 것이고, 산에 자라는 자연생중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것만 해도 4종이나 되는데 참시호 시호 쯤시호 개시호 등이다. 이 자연생전부를 토시호라고한다. 재배종이 있는데 이를 식시호라고하고 식시호는 줄기 잎 꽃 할것없이 전부 토시호보다 굵고 키가크다. 토시호는 뿌리가 머리카락 모양과 같이 가늘고 식시호는 국수처럼 굵다.

간장약재로 일본에 수출하는데 식시호는 수출이 부진하다. 뿌리를 채취하여 약에 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해열제로 되어있는데 이 약은 위장을 상하지않고 해열작용을 한다. 간장에는 물론 瀉肝작용을하여 간경화 및 간암에 효과가 있고 동물 내장에 열을 내리게 하는 용을 한다. 사람의 유방염의 처방에 시호를 쓰게된다. 토시

호는 워낙 비싸서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가축약에 사용하여 보면 월등한 효과를 가져 오게된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牡丹皮 속명에는 모란(학명은 *Paonia-Suffruticosa*) 작약과에 속한 식물로서 낙엽 및 활엽관목으로 잎은 2회 우상복엽이고, 작은잎은 난형 또는 피침형이다. 흔히 3갈래로 갈라지거나 거친 톱니가 있다.꽃은 대형으로 가지끝에 피고 겹꽃으로 흑색을 띤다. 5월에 꽃이 피고 과실은 골돌로서 혁질이 며 짧은털이 뽀뽀하게나고, 가을에 익는다. 뿌리의 겹질을 약용에 쓴다. 성분은 *Paenol* 및 안식향산과 *Isocholesterin* 등이 함유되어있고 약효는 진경 통경 진통 부인병에 사용하고 내분비 기관에 작용하게되니 유방염에 추천할만한 약재이다. 용량은 근 5g씩 사용한다.

升麻 속명에는 끼떨가리뿌리 (학명은 *Clmicifuga-beternata*) 성탁꽃과에 딸린식물로서 심산의 음지에 자생하고 뿌리를 약용에 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해독 및 진통약이다. 인



쯤시호



참시호

개시호

삼 황기 시호를 승마와같이 쓰게되면 칼슘이 조성된다고한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瓜藨仁 속명에는 하늘다리 씨(학명은 *Trichosanthes-japonica*) 박과(胡蘆科)에 딸린 식물로서 각지의 대밭이나 임야에 자생하는 반등성 번오식물이다. 이른봄에 뿌리에서 새싹이 터져나와 덩쿨을 길게 뻗어면서 곧게 서있는 다른나무에 감아서 올라가면서 자란다. 덩쿨의 길이는 3~4m에 이르고 여름철에 백색의 꽃이 핀다. 이 꽃이 진후에 타원형의 계란만한 열매가 홍색으로 연다. 이 열매의 씨는 과루인 이라고하고, 뿌리는 천화분(天花粉) 이라고한다. 씨와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排膿 및 소독 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유방염에 적합한 약재로서 추천할만하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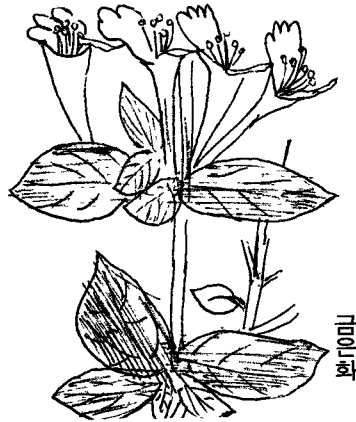


유황

乳香 (학명은 *Pistacia-lentiscus*) 본식물은 회양목과에 딸린 식물로서 남부 구주의 원산으로 상록 소교목으로 키가 3~4m에 자란다.

잎은 우수 우상복엽으로 피어있고 작은 잎은 계란형으로

피어있다. 꽃은 단성으로 자웅이 다른 유향나무에 착생한다. 본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수지를 유향이라고 하는데 이 수지를 약용에 쓰고 성분은 휘발유와 수지 및 고무등을 함유하고 있다. 약효는 장기의 동통을 완화하여주고, 복부 및 내분비 계통에 염증을 치유하여 주게되니 유방염에 추천할만한 약재이다. 용량은 4g씩 사용한다.



금인화

金銀花 속명에는 인동초 및 겨울사리덩쿨이라고한다. (학명은 *Lonicera-japonica*) 인동과에 딸린 식물로서 산지 및 로방(路傍) 등에 자생하는 덩쿨진 작은관목으로 잎은 타원형으로 대생하고, 겨울철에도 잎이 살고 있다. 초여름에 잎의 겨드랑에서 꽃대가 길게 생겨나와 백색의 합판화가 피어 점차 담황색으로 변한다. 이 꽃은 향기가 난다. 잎을 채취하여 약용에 쓰고 약효는 응저(癰疽)에 특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방염에 쓰인다. 용량은 30g씩 사용한다.

양지바른 큰바위 사이에 많이 자라고 있기때문에 채취가

용이하다.

早角刺 (조각자) (학명은 *Gl editschie-horrida*) 주엄나무과에 딸린 나무로서 산야의 시냇가에 자생하는 낙엽교목으로 나무의 크기가 5~7m에 이르고 가지는 꾸불꾸불 갈라진 가지가 나서 가시를 가지고 있다. 잎은 1~2회 우상복엽으로서 대생하고 있다. 여름철에 잎사귀의 사이에 꽃대가 생겨나와 황록색의 나비모양의 꽃이 핀다. 꽃이 진뒤에 30cm 가량의 콩깍지를 지어 열매가 10개정도 깍지안에 맺고 그 콩깍지를 다려서 그 물에다 세탁을 하게되면 때가 잘지워 진다고한다. 가시를 7~8월에 채취하여 약용에 쓴다. 성분은 Saponin이 함유되어있고 약효는 결담 및 유옹창(乳癰瘡)에 특효가 있다고한다. 유방염에 추천할만한 약재이고 가시를 가지고 유방염의 환부에 직접 침을주는 방법도 있다. 용량은 4g씩 사용한다.

3. 양방 · 한방 비교

가. 젖소의 急性乳房炎

洋漢方의 併用으로 만성이되는 경향 및 재발을 방지하고 치유가 빨리되도록 한다.

P1. 백지 패모 천화분 금은화 조각자 천산갑 당귀 과루인 감초 이상각 6g씩 1첩이 1회분이고, 1일분을 2첩으로하여 두첩다린 찌꺼기를 합하면은 또 1회분이되니 1일3회분이된다. 물반 탁주반 (각0.4ℓ 씩) 약과같이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이상 처방중에 될수

있는한 당귀는 꼬리를 감초는 마디를 사용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이 처방은 설파제및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보고, 처방한 것인데 방약합편중에 기본된 처방이다.

나. 젖소의 괴사성유방염

괴사성 유방염은 원인이 용혈성 포도상 구균뿐만아니라, 여러세균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니 과학적의 요법으로는 내성을 중화시키기가 곤란하겠다고 생각하고 양한방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P.2.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각 6g씩 적복영 몰약 각 4g 씩 감초 4g 1일2첩 재탕 합하여 1일3회 전탕 경구로 투여한다.

P.3. 소엽 인삼 황기 당귀 천궁 관계 후박 백지 방풍 오

약 빈랑 백작약 목향 각 6g 씩 감초 4g 1일2첩 재탕 합하여 3회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P2와 P3을 교대로 투여하게 되는데 1차교대로 투여하고 1일간 휴약을 취하여주고 2차 교대 2일간휴약 3차교대3일간 휴약하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연장하지 않는다.

다. 慢性乳房炎

우유중에 우유덩어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잠복패 있는 내성균을 배설시키도록 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다.

P.4. 천궁 8g 천산갑16편 왕불유행30g, 유향 몰약각 8g 씩 감초 8g 1일2첩 재탕합쳐서 1일3회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이는 양방을 겸하는 처방이고, 양방치료를 중단하고 한방만이 치료한다면 아래

와 같은 처방이다.

P.5. 방풍 당귀. 천궁 황백피 황기 시호(토재) 각8g씩 蒸活, 香附子, 각 6g 씩 왕불유행20g, 유향 몰약 각4g 씩 치자 6g, 백출 4g, 감초 4g 1일2첩 재탕합하여 1일3회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하는데, 격일로한다.

라. 臨床的乳房炎

P.6. 목향10g, 감초20g를물 2ℓ 를 첨가하고 전탕하여 유방을 세척하여준다. 1일2회, 지실 5g를 첨가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 한방의약처방전서 방약합편 약초본경 전식물도감 한국식물학 최신수의임상학개요 본초강목

♣ 도서안내

牛乳 및 乳製品 檢査

獸醫學博士 李 宰 求 著

정가 : 4,000원
先進文化社 發行